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7.0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덴마크, 7월 1일부로 EU 이사회 의장국 출범 ... 안보, 경쟁력, 혁신 중심 의제 추진(7.1)

- 7월 1일부터 덴마크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향후 6개월간 활동
- 덴마크 의장국의 슬로건은 "변화하는 세계 속 강한 유럽(A Strong Europe in a Changing World)"이며, EU의 안보 자립, 경쟁력 강화, 녹색 전환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. 연구혁신 분야에서 덴마크는 안보,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,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함
- 유럽 연구계는 덴마크의 EU 이사회 6개월 의장국 프로그램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. 코임브라 그룹 대학 총장 Emmanuelle Gardan은 의장국 의제가 회원국 관심과 밀접하다고 평가

○ 호라이즌 유럽 2026-2027 워크프로그램 초안 공개(7.1)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-27년 호라이즌 유럽 작업 프로그램 초안을 모든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함
- 지금까지는 초안이 비공식적으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돼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초래했고, 이는 제안서 준비에 있어 시간과 자원의 격차로 이어졌음
- 초안은 유럽 집행위의 [Comitology Register](#)(집행위 커미톨로지)에 게시되며, 해당 검색창에 "Horizon Europe -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" 관련 특정 위원회를 입력하면 초안을 확인할 수 있음

○ EU-스위스 공동선언문 서명, 호라이즌 유럽 재참여 합의 재확인(7.1)

- EU와 스위스는 수년간 갈등적인 협상 끝에 관계 회복을 위한 협정을 체결. 양측은 스위스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올해 안에 공식 확정될 것임을 재확인

○ (기타) ▲집행위, ERC 과학위원회에 최고과학자 임명(7.1) ▲자하리에바 집행위원, "EIC 예산 최소 두 배, 가능하다면 세 배로 확대해야"(6.27) ▲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, EU 예산 제안 앞두고 이중용도 R&D 계획 강조(6.26)